

유권자는 가장 두려운 위험을 줄여줄 후보를 골랐다 - 2026 지방선거와 위험 분배 투표

지금까지의 분석은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한다. 이번 선거는 단일한 “계급투표”나 “이념투표”가 아니라, 각 집단이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택지를 분배한 위험 분배 투표였다.

● 위험 분배 투표의 정의와 학술적 위치

위험 분배 투표(risk-allocation voting)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와 정책 거리(policy distance)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기존 모델들이 “어느 후보가 더 나은가”를 묻는다면, 위험 분배 투표는 “어느 후보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을 줄여주는가”를 묻는다.

선택의 단위는 절대적 효용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우선순위다.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집단마다 다른 위험으로 번역된다.

● 2026 지방선거의 위험 분배 구조

집단별로 가장 줄이고 싶었던 위험과 선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집단	가장 회피하고자 한 위험	선택	정량 증거
민주 효능감층	헌정질서·민주주의 훼손· 이재명 정부 실패 위험	광역단체장 12승 위임	광역단체장 12승, 사전투표 23.51%(+2.91%p), 정부안정론 49.0%
서울 자산보유층	자산가치 훼손 ·정책충격 위험	오세훈 위험회피 선택	매매가↔오세훈 r=0.934, 상용직↔오세훈 +0.698
부산 도시활성층	지역경제 정체 ·산업쇠퇴 위험	전재수 변화 베팅	고용률과 민주당 지지율의 상관관계: +0.521 경찰률과 민주당 지지율의 상관관계: +0.500
대구·TK 보수층	민주 독식·진영주의 확장 위험	본투표 위기감 결집	본투표 격차 +17.19%p 압도
재보궐 9개 지역	중앙당 공천권력 비합리성 위험	평택을 단일화 실패 ·부산 복합 한동훈 무소속 등	누적 이탈 4.6만 표
서울 약지지층	정원오 “뭘 할지 모르겠는” 불안	분할 위임 (시장 국힘+구청장 민주)	광역비례 43.86 vs 44.00, 기초 17:8

● 위험 분배 투표가 보여주는 발견들

첫째, “단일 지배 변수”가 없는 이유가 설명된다. 투표시 고려 요인 6가지(물가·민생경제, 정당·당 지도부, 부동산, 계엄·탄핵 사태, 조작 기소 특검, 주식·자본시장)가 모두 고려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어가면서도 지역별 우위가 다른 이유는, 각 집단이 각기 다른 위험을 줄이려 했기 때문이다. 물가는 보편 변수지만, 같은 물가가 자산층에는 “자산가치 훼손 위험”으로, 무주택층에는 “주거비 위험”으로, 영남 보수층에는 “정권 책임 위험”으로 다르게 번역된다.

둘째, “서울 ↔ 부산 디커플링”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상용직·고용률과의 상관계수 부호 역전(서울 상용직_보수 +0.698 vs 부산 고용률_민주 +0.521)은 모순이 아니다. 같은 직업 안정 변수가 서울에서는 “자산 보호 위험”으로, 부산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위험”으로 다르게 번역됐기 때문이다.

셋째, “광역단체장-광역비례 분할”이 설명된다. 분석보고서 3편에서 본 16개 시도 중 12개의 광역단체장이 광역비례를 상회한 패턴은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위험” (강성 진영주의·정청래 지도부·노스빅)과 “이재명 정부 효능감 위험 감소”가 다르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후보 단위로는 정부 효능감을 위임했지만, 정당 단위로는 일방독주 위험을 분할 견제했다.

넷째, 효능감과 위기감의 동시 동원이 동일 원리로 설명된다. 진보 효능감 층은 “내란 위험 감소”를 위해 동원됐고, 보수 위기감층은 “민주 독식 위험 감소”를 위해 동원됐다. 둘은 다른 종류의 동원이 아니라 위험 분배의 두 측면이다.

● 메시지·번역의 정치

위험 분배 투표 프레임은 정당 전략에 다음 시사점을 던진다. 정당은 자신의 메시지를 각 집단의 위험 언어로 얼마나 잘 번역하느냐로 평가받는다.

- 민주당은 전국 단위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위험 감소 언어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 광역단체장 12승이 그 결과다.
- 그러나 서울에서는 자산·도시생활·정책충격 회피라는 위험 언어로 충분히 번역하지 못했다. 정원의오 “도로가 막히면 자동차 공급을 축소하자” 발언과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발언, 정청래 지도부의 “오빠해봐 오빠” 등의 강성 발언은 “내 자산과 일상에 대한 정책 충격 위험”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 부산에서는 변화·전환의 위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했다. 전재수의 산업 의제와 지역경제 전환 메시지가 통했다.
- 대구·TK에서는 어떤 언어로도 보수의 “민주 독식 위험” 인식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부겸의 인물 호감도조차 본투표 위기감 결집을 막지 못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스타벅스, 공소취소 관련 바람이 거세질수록 김부겸 후보의 인물 프리미엄은 조금씩 식어갔다.

즉 같은 정당이 같은 시기에 같은 의제로 캠페인을 해도, 지역마다 다른 위험 언어로 번역되어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번 선거가 “효능감과 위기감의 동시 동원”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작동한 메커니즘이 바로 이 위험 분배의 정치다.

● 결론

2026 지방선거는 효능감과 위기감의 동시 동원이었다.

그러나 그 동원의 내면은 단순한 진영 결집이 아니라 위험 분배의 정치였다. 위험의 분배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로 작동했고, 국민의힘은 서울과 자산지역에서 정책충격과 자산가치 훼손 위험을 줄이는 선택지로 작동했으며,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경제 정체 위험을 줄이는 변화 선택지로 번역됐다.

다음 선거의 승부는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유권자의 생활위험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느냐에 달려있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